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및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무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쾨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50,4-7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 루카 23,1-49

가톨릭 성가

입당: 호산나 다윗의 후손/ 히브리 아이들/ 10

봉헌: 122

성체: 127, 152

파견: 489

◆ 화답송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빠른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하리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말없이 그냥 침묵하였습니다.
아무런 원망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였습니다.

나도 그냥 사랑하라고...
나도 그냥 침묵하라고...
나도 아무런 원망말으라고...
그냥 죽으라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라면...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침묵과
나의 고통과
나의 원망과
나의 모든 것을...

그럼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아멘 하십시오. ♠

-오상선 바오로 신부

(성경맛들이기 계속)

모세오경 안에 있는 법, 법전들

모세오경에는 율법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와 역사서술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오경을 '토라'라고 했다. '토라'란 '자(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말하며, 그 의미가 확장되어 '하느님의 가르침과 계시가 들어있는 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 '토라'를 '법'(노모스)이라 번역했고, 그 영향으로 오늘의 우리도 '모세오경'을 곧 '율법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율법서'라는 명칭 때문에 아마, '오경 전체가 다 율법으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하고 의문을 가졌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오경에서 법률부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다른 이야기들도 이 법들을 해설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경 안의 모든 법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법은 생활환경, 형태 등이 바뀌면서 점차 변화 발전되었다. 특히 '유목생활'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농경생활'로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그들의 규범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 오경의 이야기 배경은 가나안 정착 이전까지지만, 오경을 편집한 후대 저자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이 근본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문맥들 사이에 삽입시켜 놓았다. 이 법규(법전)들은 생겨난 연대, 문학적 전승에 따라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1. 십계명('율법' 또는 '윤리적 십계' 라고 불린다) 가장 오래된 법령이다. 엘로힘계 저자에 의해 기록된 탈출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계 저자에 의해 기록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약간 차이가 있다.
2. 계약법전('계약의 책' 이라고 불린다) 탈출 20,22-23,33 까지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곧 목자와 농부로 구성된 사회를 위한 법으로서 종들은 주인의 독단적 처사에서 보호받고, 궁핍한 사람에게 필수품을 주도록 조처되어 있다. 고리대금과 재판관이나 당국자에 대한 뇌물제공이 금지되고 지주들에게는 자기네 땅의 소출을 7년마다 모든 이를 위해 내놓을 의무가 부과된다.
3. 신명기법전 신명기 12장-26장에 있는 이 법령들은 원래 북 왕국에서 제정되어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남 왕국으로 전해져 요시아 왕(기원전 640-609)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4. 성법전('성화법' , '신성법전' 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전은 레위기 17장-26장에 있다. 여러 면에서 신명기 법전과 유사하나 예식과 사제직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를 따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해 거룩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그리온.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도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형인쇄 KO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마음 힐리언스 통합 한방 병원
NYC Integrative Acupuncture Clinic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5. 사제법전('사제적 법률' 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전은 레위기 1장-16장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성소, 제사, 사제, 정결, 축일 등 주로 전례에 관한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법이 의도하는 바는 성소를 중심으로 법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하느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느님의 백성다운 생활이다.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한봉사
4월 14일	홍민철 안철훈	박중섭 요한	정유진 콘솔시아	-	김보희 블라라	김영건 여다원	한창희 김우현 김진섭 한채희	장혜윤 박정자 채미재 이영혜 신윤길 신애송 박기욱 박민재
4월 18일	차지욱 안토니오	민완준 필립보	김영희 안나	-	이은경 헬렌	경원유 경재순	박지현 한채희 신정복 이선아	안선정 김창훈 *성가대 내려움 김영숙 양미숙 강호영 민재인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연령회**가 오늘 11시에 아래성당에서 피정을 합니다.
주제 :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12,49)

➢ **성모회**가 오늘 11시에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요셉회**가 오늘 11시에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 오늘, 민정신 아폴로니아 자매님께서 떡 봉헌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 지 사 항

➢ 4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17,24일 휴강)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오후 1시30분~2시50분	

➢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시작 및 주관단체 : 오전 9시, 성령기도회/양업회

➢ 성삼일과 부활 성야 전례 안내

-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 18일) : 밤 8시 윗 성당
- 주님 수난 성 금요일(4월 19일) : 밤 8시 윗 성당
- 파스카 성야(4월 20일) : 밤 9시 윗 성당

☺ 부활 성야 미사 중에 세례 및 견진 예식이 있습니다.

➢ 2019년 제21회 나눔의 바자회

일정 : 5월 19일(부활 제5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Broadway Btn31/32st, Korea Town

문의 : 추진위원장 유기호 베네딕도 (914.787.0508)

후원금 접수 : 친교실 재무팀 데스크

☆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판매용 헌 옷은 깨끗이 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 바자회 추진 위원 회의

일시 : 4월 21일 11시 / 장소 : 코리안 컨퍼런스 룸

➢ 제 14회 성 프란치스코 집 바자회

성 프란치스코 집 개원 15주년을 맞아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 나눔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 : 5월 5일(주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후 5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장소 :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퀸즈 성당에서 3블럭 거리)

➢ 청년성가대 <처음처럼> 제3회 성가발표회

청년성가대에서 "LAUDATE DOMINUM"

(부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을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윗 성당

이번 프로그램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성가들과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19년 성모의 밤

성모성월인 5월에 일생동안 봉헌의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모님께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꽃 봉헌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5월 4일(토), 오후 7:30, 윗 성당

꽃 봉헌 마감 : 4월 28일(주일), 친교실 재무팀 데스크

➢ 제 64차 맞춤형 성령 세미나 참가 안내

일시 : 4월 26일(금) 오전 9시~2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174 Filors Lane, Stony Point, New York 10980)

선착순 45명 / 4월 15일(월) 신청마감

참가비 : 300불/1인당

신청문의 : 성령기도회나 김영희 안나(347.665.6696)

➢ 제 73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7시~27일(월) 오후 5시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문의 및 신청 :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부부

(646.201.0175 / 646.808.7322)

나하나
꽃피어
꽃 나하나꽃
피어 풀밭이 달
라지겠나고 말하
지말라 네가꽃피
고 나도꽃피면 결국
손동 꽃밭이 되는것
아니겠는가
조동화님의시

“성경 맛들이기” - 모세오경의 이해

모세오경이란

구약성경 첫머리에 나오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가리킨다. 히브리인들은 이 다섯 권의 책을 단일한 문학작품으로 보고 토라(율법서)라고 부르며,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들이라고 하여 ‘모세오경’ 혹은 ‘오경’ 등으로 불린다.

이 책들은 주로 이야기들과 율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천지창조로부터 성조들의 역사, 이집트 탈출과 사막 유랑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사건들이 이야기(설화)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이야기들 사이에 수많은 법조문들이 삽입되어 있다.

다섯 권의 책을 단일한 문학작품으로 보는 이유와 오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주제

하느님께서 조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나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악이 범람하고 비극적인 세상이 된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의지를 버리지 않고 우선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시고, 많은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여 행동을 하시는데, 인간의 불충과 배신적인 응답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가 의문시되고 좌절될 위기를 자주 맞지만, 결국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은 한 백성으로 성장하여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약속의 땅 문턱인 모압 평원까지 도착한다. 따라서 모세오경은 ‘약속과 성취’라는 도식에 따라 전개되며 이런 주제의 일관성 있는 흐름 때문에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단일한 문학작품으로 취급된다.

모세 오경의 저자 및 ‘모세 오경’이라는 이름

모세가 오경을 직접 썼다고 볼 수 없다. 오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모세 자신이 직접 썼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고(예컨대 모세의 죽음과 장례식에 관한 기사), 또 모세 시대와 편집자 시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며(창세 12,6 ; 37,7 ; 신명 3,14 ; 34,6 등), 또 오경 내에는 상충, 중복, 단절 등 문학비평상의 문제점들이 많아 한 저자가 일관성 있게 써 내려간 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오경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과 손을 거쳐 전해오던 전승 자료들이 수집 정리 편찬된 작품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오경을 모세의 작품으로 인정해온 이유는 첫째, 오경자체 내에 모세가 하느님의 명을 받아 어떤 것을 기록했다는 표현이 가끔 나오고(탈출 17,14 ; 24,4 ; 34,27 ; 민수 33,2 ; 신명 31,9.22.24 ;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연설) 둘째, 구약성경 안에도 모세의 친저성을 전제한 표현들이 나오고(2역대 25,4 ; 35,12 ; 집회 24,22-39) 셋째,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전승이 생겨났고 넷째, 신약성경도 이 전승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마르 10,5 ; 12,26 ; 마태 19,8 ; 루카 24,44 ; 사도 3,22 ; 13,39 ; 로마 10,5 ; 19,1). 옛날 사람들의 저자 개념은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과는 달라서 오경의 주인공이 모세이며, 모세오경이 모세의 정신과 권위에 의해 쓰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어집니다)

◆ 미 사 봉 헌

● 연미사

민병택 베드로
이준석
최서진
신부 파이야 김정수, John McCain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복헌
가족, 양업회
김종화필립보 부부, 양업회
채봉석 그레고리
김경련 울리다
김경련 울리다

● 생미사

김세호, 김진호
조만경 부부
이세용
이지훈 아네스
유민규
강건대 마리아
냉담 교우들
김성인 신부, 김도경 수녀
엄윤근
정우득
최나은 가브리엘라

방윤미 마리스텔라
유혜상 마르첼리나
지 스테파니 가족
이 유스티나
김지영 유스티나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엄청자 요셉피나
이경자 올리안나
백승훈 야고보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2,800
감사헌금 \$ 120
합 계 \$ 2,920

※ 교무금 :

이경자(울) 장철순 허철범 김영희 린다김 경원유
박종옥 김차순 이희철 이병국 신윤길 김택영
박명심 강건대 이경자(벨) 윤동진 김경련
손유경 김보현 정제임스 양복연 김보찬
김애희 김창훈 양미숙 선명희 익명

◆ 감사헌금 : 김보현 유혜상

◆ 성모의 밤 꽃 복헌 : \$120

이종환 이정주 구세주의모후Pr 안선정 김애화